

“맞춤형 고용 서비스 한번에”

개소 1년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여름 홍보활동 기염

지리산권 대표적 문화도시 남원시에서는 시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 공유, 소통, 협력을 모토로 하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지난 7월 1일 개소 한 바 있다.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개인별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방송, 사내 문자전광판, 공설시장과 인월시장 5일장,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년여간 총 983건(지난달 31일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인숙 소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될수록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 남원고용센터와 남원시(경제과 취업알선센터, 교육체육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민복지과 복지지원팀), 주1회 순환근무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팀 등 입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들이 지난 1일 남원여객자동차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기관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고용·복지·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무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매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하반기 홍보에 주력해 8월 중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근 사거리에 센터 안내포스터를 정비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남원여객자동차 시내버스 43대 차량 내부에 문자전광판 안내를 실시하고 지난 1일 오후 5시부터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시내버스 차량 내부에 센터 홍보 및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제공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용시민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통시장 살리기 노력에도 7년째 불황의 늪 ‘허우적’

불경기·폭염·휴가철 삼중고
임실군, 활성화 대책 집중 논의

심 민 임실군수(사진)가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 여름 폭염 속에 재래시장을 찾아 나섰다.

심 군수는 2일 불경기와 폭염, 휴가철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촌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관촌전통시장은 임실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새롭게 개장한 이후 7년째를 맞고 있지만, 경기불황 등에 따른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에서도 지난 7년여간 관촌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워낙

경기가 안 좋은 탓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군수가 이날 관촌전통시장을 찾은 것도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서의 역할을 다시금 모색해 보기 위해서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 군수는 이날 관계부서 등과 함께 한 현장방문을 통해 그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지역주민·유관기관·행정이 추진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과 노점상 시장유입 조치, 노상 상행위 근절, 군내버스 시장경유 조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이날 심 군수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을 기존의 지역주민에서 벗어나 타지역 사람들과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시장 진출입로 개선 및 시장활성화 차원의 시설인 농산물 선별장과 농산물판매장(로컬푸드매장) 개설 등을 검토하고, 노점상 위치변경 등 시설 재배치 등의 방안을 제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전통시장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는 만큼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 관촌면 생활개선회 회원 40여명은 2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제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소식통

순창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11개 마을 52억원 규모 공모 선정

순창군이 각각의 마을 특색을 살린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성과를 보고 있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 11개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52억여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등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역량단기별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분야 중 마을단위 중규모 사업이다.

순창군은 각 마을의 장점을 살려 함께 하는 문화복지, 경관생태조성, 소득체험 분야 등 3가지 분야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 월곡 꾸지뽕 마을사업과 유등 금판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올해는 풍산면 덕산마을과 북촌면 비석마을·석보마을 사업이 완공돼 경관개설 및 마을의 체험사업 운영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인계 가옥, 썬치 석현, 북촌 동산마을에는 각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현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순창=이왕림 기자

순창군 치유농업 1번지 건설 ‘가속도’

효과 검증·전문화 통해 농촌관광 새 패러다임 창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이 치유효과 검증과 전문화를 통해 농촌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순창 치유농업을 6차산업의 전국적 성공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양측은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한 치유효과 검증 및 홍보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하반기 체험객을 선발해 사전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협동연구과제도 수행한다. 군은 시범농장

을 선정 네트워크화하고 원예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맡는다. 순창군보건의로 원은 관내 만성질환관리자 체험객 선발을, 전북대병원은 효과검증 프로토콜 개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립원예원 교육과정에 치유농업지도사 자격증반을 순창군에 시범 운영해 체험객들에게 치유농업에 대한 공신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순창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대병원이 참여하는 추진단도 구성해 추진기로 했다. 치유농업과 반려동물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순창군은 2015년부터 치유농업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역에 19개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장주에 대한 교육과 간판, 침구, 식기류, 포장재 등 운영의 표준화 작업도 진행해 치유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또 순창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해 당초 고혈압 비만 등의 치유를 위한 삼차림 6종과 발효소스 5가지 및 11종 등 치유 음식 개발도 완료해 내 실을 기하고 있다. 치유의 벗이란 공동브랜드를 통해 순창치유농장 마케팅과 네트워크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태다.

/순창=이왕림 기자

두달여 앞 ‘임실N치즈축제’ 손님맞이 준비 착착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임실N치즈축제를 맞아 대대적인 환경 조성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촌면 생활개선회(회장 전정자) 회원 40여명은 2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제조작업을 실시했다.

국도 17호선 서산마을에서 슬치까지 한 삼차림 6종과 발효소스 5가지 및 11종 등 치유 음식 개발도 완료해 내 실을 기하고 있다. 치유의 벗이란 공동브랜드를 통해 순창치유농장 마케팅과 네트워크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태다.

축제의 주무대인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소재한 성수면도 축제장 주변 환경조성 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28일, 31일 지역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장 주변도로 3Km에 걸쳐 가을의 정량사 코스 모스 1만여본을 식재했다.

또한 축제장 주요 진입로 주변에 국화 450본, 간나 550본, 메리골드 2,200본을 식재해 또 다른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백종원 성수면장은 “앞으로 지역주민,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 식재한 화초류 및 축제장 주변 환경 정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농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